

## 우리들의 모습



## 예신 개강미사



3월 16일(주일) 교구청에서 주교님 주례로 '2025년 예비신학생 모임 개강미사'를 봉헌하였습니다. 20명의 예비신학생들은 미사 중 예비신학생 선서를 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소리 높여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더불어 올해 교구 실천사항에 맞추어 방울 토마토 모종을 직접 화분에 옮겨심고, 생명의 밥상을 차리는데 한 몫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.

## 영명축일 축하합니다!

- 4월 21일 안셀모  
예비신학생 - 심의준 (개운동, 중2)

## 예비신학생 기본교리

### 나의 대부님은 누구일까요?

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뒤에 서 있었던 사람을 알고 있어요? 남자가 세례받을 때는 대부님, 여자가 세례받을 때는 대모님이 뒤에 서 있지요. 세례 예식에서 대부모는 세례받는 사람의 뒤에서 기도하고 어깨에 손을 올려주기도 하고, 또 세례초를 건네주기도 하지요.

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는 대부모가 있어야 합니다. 대부모는 예비신자가 세례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, 세례성사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중한 사람이자 세례의 증인입니다.

어린이 세례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모는 이 어린이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부모님과 협력합니다. 아기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대부모가 대신해서 신부님의 질문에 대답하고, 또 이 아기를 신앙으로 기를 것을 다짐하지요.

대부모의 적절한 연령은 만 16세 이상인데,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예외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. 대부모는 이미 세례성사, 견진성사,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. 단 세례를 받을 사람의 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 없으나 다른 친척들은 가능합니다.

우리 예신생 친구들의 대부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. 대부님을 잊지 않도록 하고, 혹시나 잊었다면 부모님께 물어봐서 찾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, 대부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~!

출처 : 가톨릭신문 제3165호. <대부와 대모> 참조.

## 기억해요!

### 1. 예비신학생 4월 모임

- 일 시 : 4월 13일(주일) 14:00
- 활 동 : 감자심기(장소 추후 안내)



2025년 4월

## 예비신학생 편지



< 2025년 예비신학생 개강미사 및 3월 모임 >



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

[https://www.instagram.com/andongcatholic\\_](https://www.instagram.com/andongcatholic_)  
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

## 예신생과 나누는 'Joungul'

- 어서 빛으로 일어나 -

주님 일어나십시오  
돌무덤에 갇혀 있던 어둠을 밀어내고  
어서 빛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오십시오

죽음의 깊은 잠을 떨치고 일어나신  
당신의 기침소리에 온 우주는 춤추기 시작하고  
우리는 비로소 나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

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으로  
온 인류를 일으켜 세우신 그리스도님  
죄를 뉘우쳐 눈이 맑아진 기쁨으로  
오늘은 부활하신 당신의  
흰 옷자락을 붙들고 산을 넘고 싶습니다

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끝내는 아름답게 피워 올린  
자목련 빛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

감추어 둔 향기를 아낌없이 쏟아 내는  
4월의 꽃나무들처럼 기쁨을 쏟아 내며  
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 
날마다 새롭게 생명의 수액을 뿜어 올리는  
생명나무이고 싶습니다

어서 빛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오십시오



글 출처 : 이해인 수녀, 사계절의 기도, 분도출판사, 2018 개정증보판  
그림 출처 : 바오로딸 콘텐츠

## 신학생으로부터~



안녕하세요. 예신생 친구들,  
이민우 테오필로 신학생입니다~  
저 이번 트윌지에 '아버지'라는  
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. 그래서  
예비신학생 편지에서도 아버지  
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볼까 해요.

친구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 
이신가요? 무뚝뚝한 아버지?  
다정한 아버지? 무서운 아버지? 친구같은 아버지?

모두가 아버지의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. 그러나  
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.  
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 
있는 아버지. 아버지에게 우리는 전부일 거예요.

하느님 또한 그러하시답니다.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 
사랑하셔서 직접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시고, 직접  
수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.

사순을 보내며 아버지와 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한번  
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

마지막으로 우리 예신생 친구들도 아버지께  
"감사합니다", "사랑합니다"라는 말 한마디를  
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버지는 아마도 큰 힘을 얻을  
거예요~~



봉화 본당, 연구2  
이민우 테오필로 신학생

## 난 도 리 - 백종현 페르디난도



우울과 분노 부터 나를 지켜주는 친구..  
네 마음안에 오아시스.. 아메! NANDO